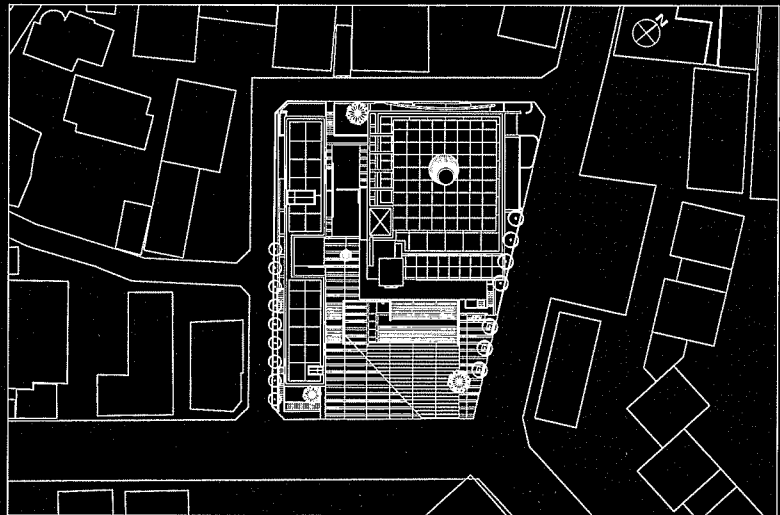


D천주교회 D Catholic Church

이충기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by Lee Chung-Ki



배치도

노트를 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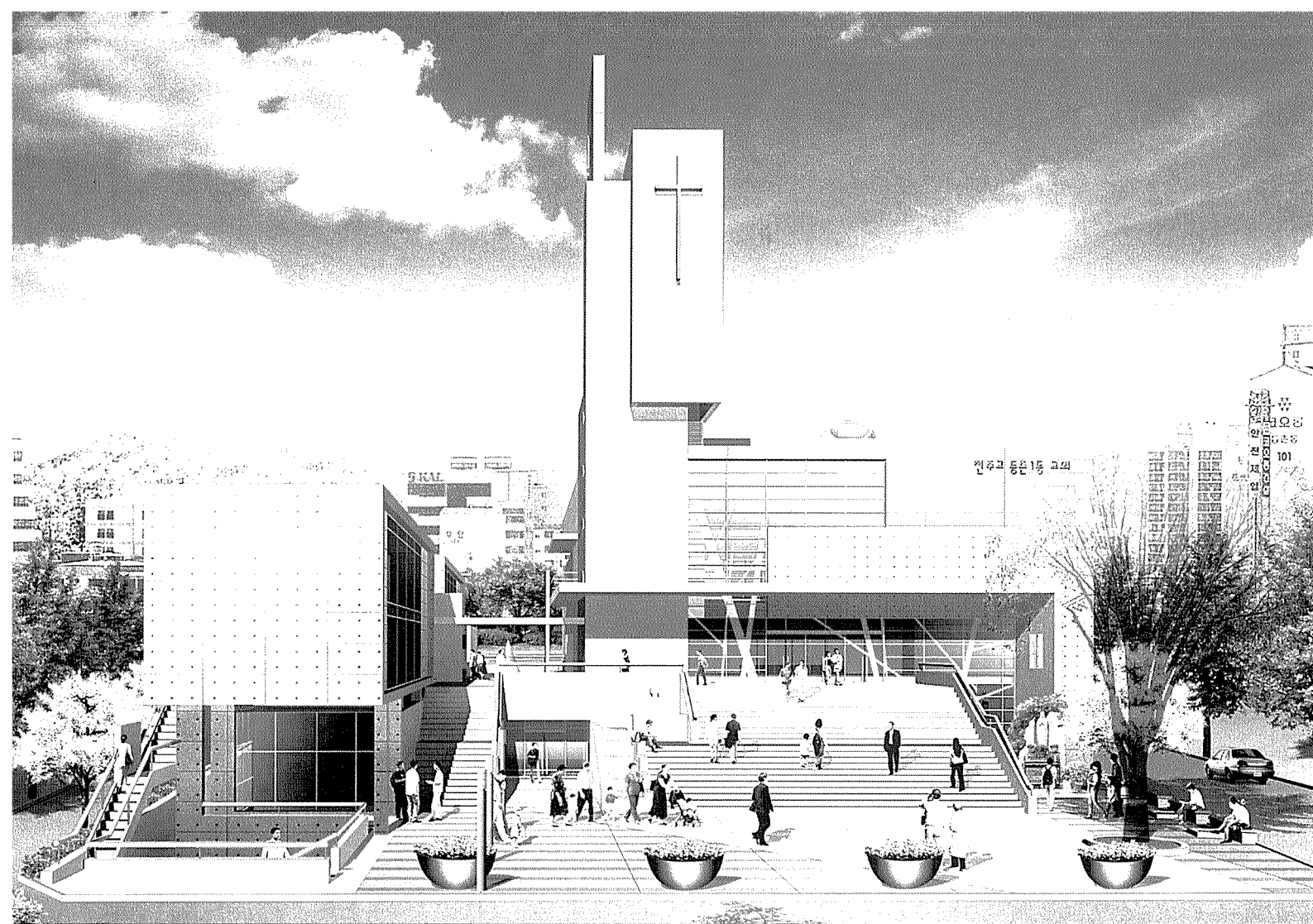
짜고 치는 고스톱을 잘 모르는, 평소 일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Y모씨(세례명이 바오로라 했던가? 그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솔직하며, 일밖에 모르는 분이다.)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다니는 성당을 헐고 새로 짓는 일이 준비 중이라고.

그러면서 성당 신축설계를 설계경기로 진행하되 준비위원들의 추천으로 5개사 정도를 지명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무실을 정해놓고 다른 사무실들은 들러리로 참여시켜 형식상 공정했다는 소리를 듣기위해, 그래서 투명성을 포장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터라 좀 내키지 않는 투의 반응을 보였더니 그 분 말씀이 큰 사무실은 제외하고 10명에서 15명 사이 규모의 설계사무실들을 추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형사무실을 지명해 봐야 결국 10명 정도 되는 한 팀에서 추진할 데고 설계비도 많이 요구할 것이니 중소형 규모의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의견

을 모았다고 했단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성당, 종교건축 설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

Portfolio를 제출하면 그 중에서 5개 회사를 지명하여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여 부랴부랴 기존 Portfolio를 보강하여 제출하고 기다렸다. 궁극함을 참지 못해 며칠 후 Y모씨에게 연락해 보았더니 자기가 보기에 우리 회사가 5개 안에 무난히 들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주일 후 추진위원장이 통보한 내용은 탈락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성당 측에서 중소기업 사무실이 불안했던지 첫 자만 대면 다 알만한 수백명 규모의 대형 설계사무실을 지명하여 요청을 했던 모양이었다. 역시나 하는 마음뿐이었다. 허탈한 심정이 여기서 그치면 이 뒤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주 후 성당 측 추진위원장에서 연락이 왔다. 다시 기회를 주면 응모할 수 있느냐고? 망설인 끝에 가능하고 했더니 3주 후에 안을 제출하라고 하기에 왜 다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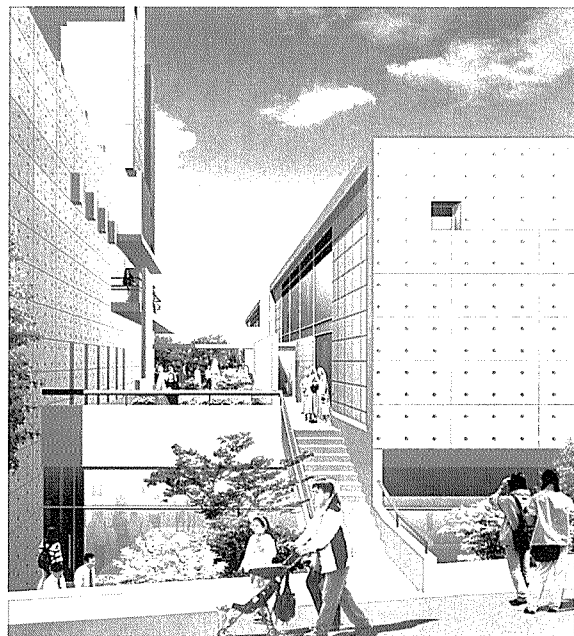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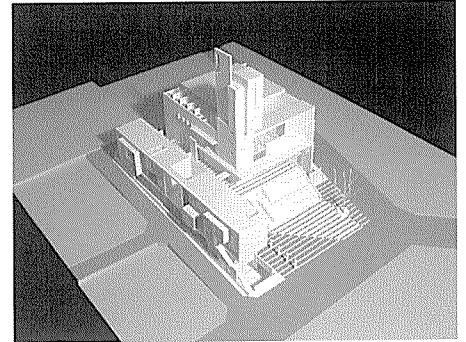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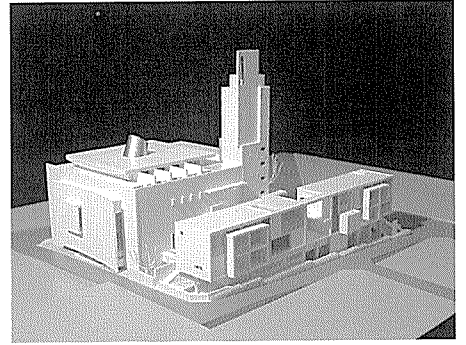
명을 하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Y모씨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알아 보았더니 대형 설계사무실 3군데에서 규모도 크지 않고 설계비가 많지 않아 안을 제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추가로 3군데를 지명했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더욱 놀랄 일은 1000평 정도의 규모에 설계비 1억 정도 되는 현상설계에 “ㄷ”같은 대형 설계사무실이 제출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처음으로 성당 설계를 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느티나무에 물이 오를때 현장 답사를 갔다. 대지 주변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4m, 6m, 8m, 10m의 좁은 도로로 둘러싸인 island 같은 상황 이었고 전면과 후면의 2.5M 정도 Level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큰 도로에서의 주 진입로가 강한 시선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축선상에 기존 성당마당의 느티나무가 봄갈지 않게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2000년 태풍에 쓰러진 것을 다시 심어 큰 덩치에 비해 잎사귀는 듬성

듬성한 것이 마치 가을 같았다. 좁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어린이들이 맨돌며 놀고 있었고, 나는 이 성당의 역사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느티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적었다.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사람의 때가 묻어 있고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 아늑하고 정겨운 모습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아늑한 마당의 이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한없는 상념에 잠겨 있었다.

대지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이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곳이 곧 아파트 숲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 지은 성당건물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답사 후 대지로부터 얻은 Design의 실마리는 느티나무와 아파트 숲을 비집고도 보여주어야 할 것, 시선적 표현, 즉 종탑 그리고 Level 차, 이곳에 제공되어야 할 열린 공간 등이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추억 그리고 매개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추억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터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박하고 겸손한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며, 그 추억의 매개체(a vehicle of retrospection)는 마당과 마당에 있는 저 부활을 꿈꾸는 느티나무(Zelkova)가 될 것이다.

그 느티나무 주변에는 항상 그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들이 만드는 풍경, 즉 순간적 행위, 사건/시물라크르(Simulacre)가 존재 할

것이며, 그것은 추억을 돕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전례규정, 기존 사례 등을 참고하여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틀을 잡았다. 대성당과 사제관을 분리하고 그 사이를 중정으로 계획하여 Privacy를 고려하였고, 진입마당에서 2층 대성당으로 연결되는 큰 계단을 설치하여 대규모 옥외집회도 가능한 열린 교회를 제안하였다. 공간적 경계는 있을지언정 시각적 경계는 없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외부공간은 쓰다 남은 자투리가 아니라 내부의 기능을 가진 공간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등가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대성당에서는 제대와 감실을 이루는 성단과 그 중에서 독경대, 해설대, 사제석, 성모상, 십자가 등의 위치와 성수대, 종의 위치가 관심의 대상이었고, 고해실의 위치와 동선, 영성체를 고려한 동선계획 등이 고려해야 할 주안점이 되었다. 그리고 사제관과 수녀원에서 특히 사제관의 식복사 공간과 사제식당, 숙소공간에서 주임신부와 신부의 위계, 수녀원에서의 상담실의 위치, 숙소에서의 옥실계획 등은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들이었다.

그렇게 Design 하고 밤샘으로 작업하여 Panel 2장, 모형, 조감도를 제출하던 그날 나는 작업노트에 또 이렇게 적었다.

“종탑 그리고 시선적 투혼”

종탑은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느티나무의 그림자이다. 마치 교회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혹은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티나무의 Image로 치환된다.

그리고 진입로와 느티나무를 연결하는 축의 연장선상에 배치되어 진입로에서의 강한 시선축을 형성할 것이며, 진입마당과 느티나무와 함께 교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종탑은 주변의 어느 위치에서도 시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높이를 가진 하나의 Land mark가 될 것이며, 고층 아파트들이 에워싸고 위협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얼굴을 내미는 투혼을 발휘할 것이다.

노트를 닫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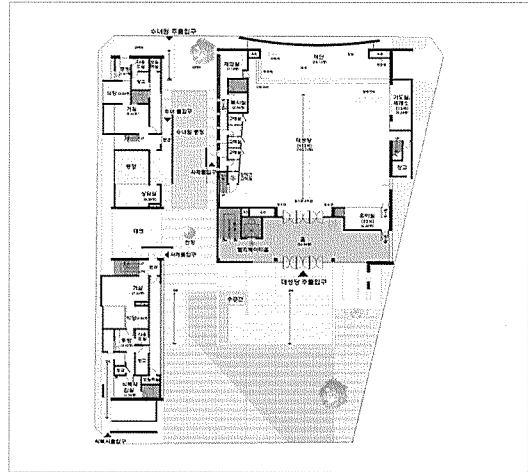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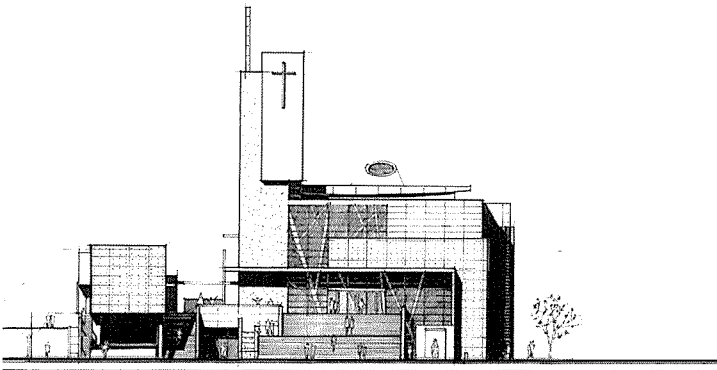
노트 안에 담긴 나의 생각들이 몹시 답답해 할 것 같다.

이제 그 작업 노트를 다시 펼 기회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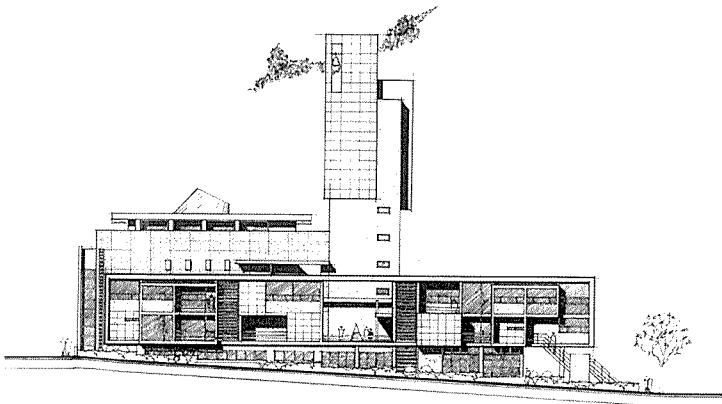
나는 기다릴 뿐이다. 언젠가 또 우리에게 나의 생각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ㄷ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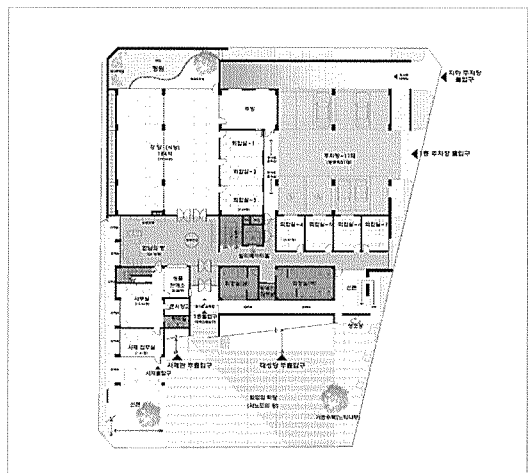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6-48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고도(원추)지구 - 고도제한 52m기준
대지면적	2,101.10㎡(635.58평)
건축면적	1,221.51㎡(369.51평)
연면적	3,214.60㎡(972.41평)
건폐율	58.14%(법정 60%)
용적률	103.64%(법정 40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노출 콘크리트 + 샌드스톤 + 24mm컬러복층유리 + 목재패널
주차계획	계획 - 31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법정 27대
조경계획	계획 - 366.00㎡(16%) 법정 - 315.17㎡(15%)
설계팀	이충기, 도성열, 서유찬, 이정륜, 남기중, 조성완, 이상복, 김은아
모형	정지광, 이동복



2층 평면도



스케치



1층 평면도